

##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 혜 경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유 나 현<sup>†</sup>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여 23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5.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 및 조절효과가 포함된 통합모형에서 첫째,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외상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통감내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고통감내력은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고통감내력이 낮은 경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외상,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 매개된 조절효과

\* 본 연구는 김혜경(2020)의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sup>†</sup> 교신저자 : 유나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인문관 503호

Tel : 051-663-4317, E-mail : yoonh@ks.ac.kr

청소년기는 각기 서로 다른 시작과 끝이 있는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삶의 한 시기이다. 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모습에서 점점 성인의 사고, 행동 특성을 형성하며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Spear LP, 2000). 이 기간에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들과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생활과 개인의 발달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학업, 규칙준수, 관계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생활 적응을 통해 청소년은 학업뿐 아니라 발달적 적응과 새로운 관계 경험, 미래의 진로나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고 미래의 자신을 준비해나간다. 그러나 심리적 부적응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특히 가정 내의 심리적 환경은 성인 이후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Loeber와 Farrington(2000)은 부모의 방임, 의사소통 부족, 감독 부족, 신체 및 성 학대 등이 비행과 청소년범죄의 아동기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아동에게 정서적 외상의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박진아, 2016; 이현정, 장희순, 2014),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충동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현의, 2005). 이처럼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uchanan, Ten Brinke, & Flouri,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정

서적 외상 경험으로 정서적 학대와 방임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급변하는 청소년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는 고통감내력이 청소년기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 타인과의 관계가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련성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개인의 발달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서적 외상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 때 일상에서 친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양육자와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기인식에 대한 변화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 심리적 기능의 손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부적응적인 심리문제를 일으킨다(Herman, 1992). 정서적 외상은 학대와 방임이 정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거절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서적 방임과 습관적, 반복적으로 언어화된 방식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정서적 학대로 나타난다(Shaffer, Yates, & Egeland, 2009). 복합외상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를 가장 심각한 외상으로 보았으며(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Allen(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인 부모에게서 경험한 외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발달과정 동안 양육자의 무시, 굴욕, 갈등, 거부 등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경험은 개인에게 외

상으로 경험되어져 이후에 정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Shapiro, & Maxfield, 2003).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Brown & Finkelhor, 1986),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Bernstein et al., 1994).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은 우울, 불안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안동현 외, 2003; 김은정, 김진숙, 200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공격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문상희, 서수균, 2015).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폭력, 왕따, 학습장애, 자살, 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중도탈락하거나, 학교생활 내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김종범, 2009). 이처럼 정서적 외상 경험은 학교생활 부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 경험으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적 학대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족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등으로 인해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아동을 경멸하고 원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부적인 행위(Spertus, Yehuda, Wong, Halligan, & Seremetis, 2003)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또한,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고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으로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보건복지부, 2006)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영향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취약성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고통감내력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스트레스 자극이 유발되는 주요 생활 사건에서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고통감내력이라고 하며(Simons & Gaher, 2005), 고통은 부정적 경험을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뜻한다(Selye, 1956). 일반적인 정신건강과 상관이 유의한 고통감내력(Zvolensky, Bernstein, & Vujanovic, 2011)은 그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부정 감정이나 사고와 거리를 두는 탈중심화 능력이 높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그 수준이 낮으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이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정신병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정지현, 권석만, 2013). 청소년기의 불안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낮은 고통감내력과 연관이 있으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높고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cci, Lejuez, Dougherty, & MacPherson, 2017). 이지영과 정지현(2016)은 정서적 외상과 같이 과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 경험이 고통감내력 수준을 낮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청소년은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고 과거에 정서적으로 무시되는 반복적인 상황들 속에서 겪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고통감내력의 발달을 힘들게 하므로, 성인에 비해 고통감내력이 낮고 이로 인한 정서조절의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한다(이지영, 김은하, 2018; Anka et al., 2013). 이들은 자신이 고통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지각하고(김미경, 2015), 우울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자살사고도 높게 보고했다(서한나, 2011). 이처럼 고통을 감내하는 역량 발달의 저하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조가영, 조민아, 2018),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쳐 자해 등의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 특히 여학생의 경우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을 경우 고통을 더 크게 지각하고 우울, 고립, 반추 경향이 높아 회피 전략에 의존하므로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된 정서 문제에 높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Daughter et al., 2005). Bower(1970)는 이런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항상 불안하고 억압된 기분에 몰두하여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나 교사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정서조절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낮은 고통감내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심리요인 중 우울과 공격성은 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 성적, 학교규칙, 학습활동 등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이명희, 2008; 최정미, 우희정, 이숙,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볼 때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고통감내력이 낮아 더 큰 어려움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가능한 보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서적 외상, 고통감내력,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개인 외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경희, 이윤주, 2017;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다(김슬애, 하정, 2014),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며(Cobb, 1976), 사회적 지지를 받는 관계에 있는 개인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그 관계망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이인정, 2011).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 사건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Cohen & Willis, 1985). 특히 청소년은 환경을 조절하는 인지적 구조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최성열, 2001).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친구와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써 성격, 행동, 외모뿐만 아니라 환경적 조건 등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때 경험하게 되는 관계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을 겪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서적 관계를 요한다. 반대로 이때 경험하게 되는 관계적 지지는 이전의 정서적 외상 경험의 영향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Muller et al.,

1994). 높은 수준의 교사나 또래 관계에서의 지지는 청소년이 학교를 비롯한 외부환경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청소년의 높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된다(박현주, 2007; Buchanan, & Bowen, 2008).

선행연구에서 고통감내력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지현, 권석만, 2013), 최미경(2014)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임경란(201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있더라도 또래 관계가 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흑인대학생의 자살위험과 고통감내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Tomas와 Brausch(2020)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지지를 받으면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사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보고돼(Harris & Molock, 2000; Hirsch & Barton, 2011), 정서적 외상으로 고통감내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자아개념과 인지발달, 그리고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인(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이지만 그 지지자원은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으로 매

우 제한적이다(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제한된 사회적 지지자원을 갖는 이유에 대해 추이현(2002)은 성인들은 혈연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지체계를 확장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친구, 가족, 그리고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서적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통감내력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데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정서적 외상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상사건에 더 취약하며(Simmons, 2007),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사건의 정서적 측면을 크게 받아들이며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Wood, 1993). 이 같은 청소년기의 외상과 정서적 외상 경험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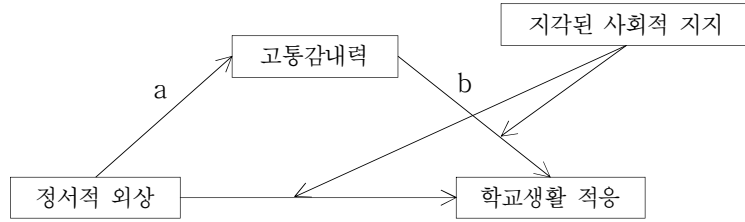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통감내력은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 관계를 매개하는가?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37명(16.1%), 고 1학년 46명(20%), 고 2학년 46명(20%), 고 3학년 33명(14.3%)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12세~18세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측정 도구

정서적 외상 척도

Bernstein과 Fink(1998)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이유경(2006)이 수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정서적 방임 그리고 신체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등 5가지이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경란(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학대(예시문항: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서적 방임(예시문항: 우리 가족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10문항만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척도의 평정 척도는 전혀 없음(0점)에서 자주 있음(3점)까지의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7, 8, 9, 10번이 역 채점 문항이며 점수 분포는 최소 0에서 최대 30점에 분포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방 법

연구 절차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였다. 부산 소재 1개 남자 중학교, 1개 여자 중학교,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4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230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사례 중 고등학생 125명(54.3%), 중학생 105명(45.6%)이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 120명(52.2%), 남학생 110명(47.8%)이었다. 학년에 따른 분포는 중 1학년 27명(12.8%), 중 2학년 41명(17.8%), 중 3학년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임경란(2019)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 척도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86으로 나타났고, 고유나(2016)의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학교생활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02)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4가지로 분류되며 교사관계(예시문항: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한다.), 교우관계(예시문항: 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학교수업(예시문항: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학교규칙(예시문항: 나는 당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평가척도가 6점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20점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9였고, 서인균, 이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 고통감내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Simons와 Gaher(2005)가 고통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박성아(201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척도로, 평가척도의 평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심리상태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imons와 Gaher(2005)는 고통감내력 척도가 감내력, 몰두, 평가, 조절과 같이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박성아(2010)의 고통감내력 척도 변안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한국판 고통감내력 척도가 조절(regulation)(예시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을 참기 힘들다.), 감내력과 몰두(tolerance & absorption)(예시문항: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보다 더 잘 견뎌내는 것 같다.), 평가(appraisal)(예시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렵다.) 등 총 3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그의 연구에서 고통감내력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으며, 이 척도를 사용하여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강화정, 이지연(2016)의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가족과 친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이하 MSPSS)를 측정하기 위해서 Zimet, Dahlem과 Farley(1988)이 개발한 것을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수준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문항(예시문항: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문항(예시문항: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주요 타인으로부터 묻는 지지 4문항(예시문항: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평가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정말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준섭,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2018)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개된 조절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Preacher 등(2007)이 개발한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추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집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방법과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PREOCESS를 적용하였다. 이후 Muller, Judd와 Yzerbyt(2005)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과 매

결 과

주요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외상은 고통감내력( $r=-.255, p<.01$ ), 학교생활 적응( $r=-.323, p<.01$ , 지각된 사회적 지지( $r=-.501, p<.01$ )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고통감내력은 학교생활 적응( $r=.356, p<.01$ ), 지각된 사회적 지지( $r=.241,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교생활 적응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r=.471, p<.01$ )와 정적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4
정서적 외상	-			
고통감내력	-.255**	-		
학교생활 적응	-.323**	.356**	-	
지각된 사회적 지지	-.501**	.241**	.471**	-
평균(M)	12.64	42.13	90.43	53.67
표준편차(SD)	3.41	10.50	12.60	5.87
왜도	1.42	-0.08	0.08	-0.74
첨도	1.65	-0.95	-0.65	-0.26

주. \*\* $p<.01$ .



표 2. 성별 간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측정변인	남자(N=110) 평균(표준편차)	여자(N=120) 평균(표준편차)	t
정서적 외상	11.90(2.88)	13.32(3.72)	-3.24**
고통감내력	44.50(10.52)	39.96(10.04)	3.35***
학교생활 적응	90.95(13.79)	89.96(11.45)	0.59
지각된 사회적 지지	54.06(5.89)	53.32(5.86)	0.96

주. \*\* $p < .01$ , \*\*\* $p < .001$ .

상관이 있었다. 제시한 표 2는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성별에 따라 각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외상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0) = -3.24$ ,  $p < .01$ , 고통감내력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0) = 3.35$ ,  $p < .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 외상을 보다 크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고통감내력 수준 또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가설검증 과정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할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 매개효과 분석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연구방법인 위계적 회귀분석과 Preacher 등(2007)의 PROCESS Macro 4번 모델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회귀식에서 성별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정서적 외상이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표 3.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1단계 (종속변수: 고통감내력)			2단계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3단계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성별	-3.585 (1.355)	-.171	-2.645***	0.724 (1.616)	.029	0.448	2.045 (1.564)	.081	1.317
정서적 외상	-0.675 (0.199)	-.219	-3.396***	-1.215 (0.237)	-.329	-5.125***	-0.966 (0.232)	-.262	-4.172***
고통 감내력							0.368 (0.075)	.307	4.881***

주.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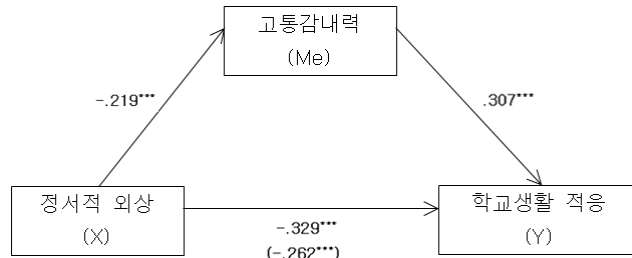


그림 2.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주. 독립변수(X), 종속변수(Y), 매개변수(Me).

$=-.219, t=-3.396, p<.001$ ). 다음으로 2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인 정서적 외상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beta=-.329, t=-5.125, p<.001$ ). 이는 정서적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정서적 외상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307, t=4.881, p<.001$ ). 그리고 독립변수인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262, p<.001$ )는 매개효과변수를 고려하기 전( $\beta=-.329, p<.001$ )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이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등(2007)의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 재확인하였다. MacKinnon, Lockwood와 Williams(2004)의 연구에서는 유의성 검증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 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249$ 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서는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본 연구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1.420$ 로 나타났으며, 상한값은  $-.510$ 로 나타났고, 이 두 구간 사이의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외상경험이 높으면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아져서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의 매개경로가 유의하다는 것

표 4.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고통감내력	-.249	.232	-1.420	-.510

이 검증되었다.

###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Muller 등(2005)의 통합분석모형(unified analytical model)에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단일 분석모형으로 통합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접근법을 소개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총 3단계의 회귀식이 제시되었고, 각 단계별로 분석해 나가면서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검증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최종적인 이론모형을 도출해 냈다. Muller 등(2005)의 통합모형에 의하면 1단계는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로 연구가설의 형태로 제시된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이다(배병렬, 2015; 정선호, 서동기, 2016). 즉, 매개된 조절은 조절 효과가 제3의 변수인 매개변수를 통해 “왜”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통계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정서적 외상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 간의 조절효과 검증에 대한 가설이 존재하며, 분석을 위해 Muller 등(2005)이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Muller 등(2005)의 매개된 조절모형 분석 절차에서 검증해야 할 3가지 모형은 아래와 같다. 매개된 조절효과의 3가지 유의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a) 모형 1에서의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조절효과가 있어야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 즉, 아래 회귀방정식에서  $\beta_{13}$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이 유의적이어야 한다. b)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본다. 이

식에서는  $\beta_{23}$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이 유의적 인가를 본다. c)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에 본다.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beta_{23}$ 과  $\beta_{34}$ 가 모두 유의적이거나 또는  $\beta_{21}$ 과  $\beta_{35}$ 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또는 이들 4개 모두가 모두 유의적이어도 된다. 이들 조건 가운데 하나만 유의하거나 또는 4개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모형 2에서  $\beta_{23}$ 과 모형 3에서의  $\beta_{34}$ 가 모두 유의적이라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모형 2에서의  $\beta_{21}$ 과 모형 3에서의  $\beta_{35}$ 가 유의적이라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beta_{33}$ 의 값이  $\beta_{13}$ 보다 작고 비유의적인 경우, 이를 완전 매개된 조절(full mediated moderation)이라고 한다.

$$\text{모형 1: } Y = \beta_{10} + \beta_{11}X + \beta_{12}Mo + \beta_{13}XM_o + \varepsilon_1$$

$$\text{모형 2: } Me = \beta_{20} + \beta_{21}X + \beta_{22}Mo + \beta_{23}XM_o + \varepsilon_2$$

$$\text{모형 3: } Y = \beta_{30} + \beta_{31}X + \beta_{32}Mo + \beta_{33}XM_o + \beta_{34}Me + \beta_{35}MeMo + \varepsilon_3$$

모형 1에서는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macro PROCESS Model 1을 활용하였다. 표 5의 모형1에서 정서적 외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외상( $\beta_{11}=-.194, t=-2.675, p<.01$ )의 주효과와 정서적 외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

표 5.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변수	모형 1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B	SE	$\beta$	t	LLCI (B)	ULCI (B)
성별	.486	1.483	0.019	0.328	-2.437	3.409
정서적 외상	-.714	.267	-0.193	-2.675**	-1.271	-.194
지각된 사회적 지지	.951	.144	0.443	6.592***	.664	1.234
정서적 외상 x 지각된 사회적 지지	-.089	.033	-0.183	-2.695**	-.154	-.024

변수	모형 2 (종속변수: 고통감내력)					
	B	SE	$\beta$	t	LLCI (B)	ULCI (B)
성별	-3.621	1.343	-0.173	-2.697**	-6.267	-.975
정서적 외상	-.580	.247	-0.189	-2.345**	-1.067	-.093
지각된 사회적 지지	.320	.131	0.179	2.446**	.062	.578
정서적 외상 x 지각된 사회적 지지	-.047	.030	-0.116	-1.582	-.106	.012

변수	모형 3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B	SE	$\beta$	t	LLCI (B)	ULCI (B)
성별	1.330	1.430	0.053	0.930	-1.489	4.149
정서적 외상	-.474	.264	-0.128	-1.796	-.993	.046
지각된 사회적 지지	.838	.139	0.390	6.022***	.564	1.112
정서적 외상 x 지각된 사회적 지지	-.041	.033	-0.084	-1.236	-.107	.025
고통감내력	.310	.070	0.258	4.424***	.172	.448
고통감내력 x 지각된 사회적 지지	.035	.011	0.182	3.136**	.013	.058

주. \*\*  $p < .01$ , \*\*\*  $p < .001$ .

용 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_{13} = -.183$ ,  $t = -2.695$ ,  $p < .01$ ). 즉,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지지되었다.

모형2와 3에 대한 분석을 위해 macro PROCESS Model 59를 활용하였다. 우선 모형 2에서는 정서적 외상과 고통감내력 사이의 조절효과 및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본다. 그 결과 고통감내력에 대한 정서적 외상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고, 정서적 외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수인 고통감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_{23} = -.116, t = -1.582, ns$ ). 모형 3에서는 모형 1에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_{35} = .182, t = 3.136, p < .01$ ). 이에 반해 정서적 외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직접조절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_{35} = -.084, t = -1.236, ns$ ). 다시 말해, 매개 과정에서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통제된 후에 정서적 외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즉, 학교생활 적응과

고통감내력의 관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고(단순 기울기=4.629,  $t = 4.539, p < .01$ ),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단순 기울기=2.269,  $t = 4.539, ns$ ).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즉, 직접효과가 작아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최종적으로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이라고 한다. 정선호, 서동기(2016)의 연구에 의하면, 모형2의  $\beta_{2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모형 3의  $\beta_{35}$ 가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효과  $\beta_{35}$ 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만 발생하고( $b = -.444, SE = .226, 95\% LLCI = -.968, ULCI = -.089$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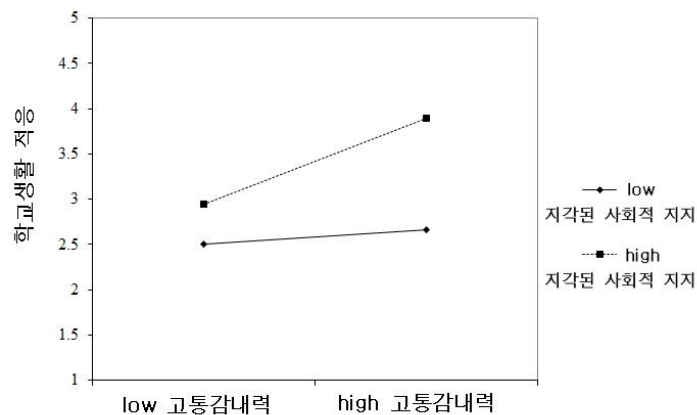


그림 3.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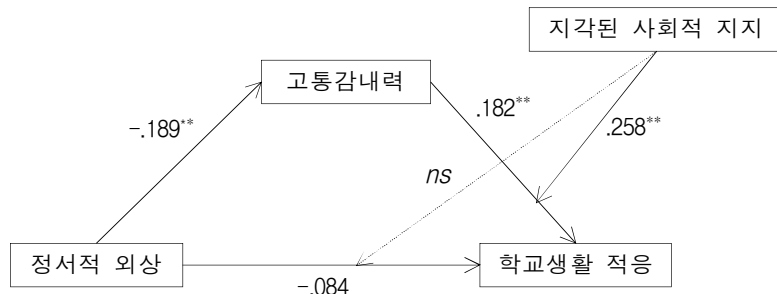


그림 4. 정서적 외상,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된 조절모형

표 6.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따른 매개된 조절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매개된 조절			
	Boot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5.866)	-.031	.043	-.129	.050
+1SD(5.875)	-.444	.226	-.968	-.089

주. Boot LLCI: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이 낮은 경우 이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31$ ,  $SE = .043$ , 95%  $LLCI = -.129$ ,  $ULCI = .050$ ).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외상과 고통감내력,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적응적인 학교생활 증진을 위한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응적인 학교생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정서적 외상과 고통감내력, 학교생활 적응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그 효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환경적·맥락적 요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외상은 고통감내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고통감내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외상이 높을수록 개인의 고통감내력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등 모두의 취약한 수준과 관련되

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해 고통감내력 수준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지영, 정지현, 2016; 조가영, 조민아, 2018; Anestis, Selby, & Joiner, 2007; Gaher, Hofman, Simons, & Hunsaker, 2013; Howell, Leyro, Hogan, Buckner, & Zvolensky, 2010; Kraemer, Luberto, & McLeish, 2013; Simons & Gaher, 2005; Vujanovic, Bonn-Miller, Potter, Marshall, & Zvolensky, 2011).

둘째,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고통감내력이 매개하는 개념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정서적 외상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이 낮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통감내력 수준이 정서적 외상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개인의 기능 수준이 저하된다는 Simons와 Gaher(2005)의 인지적 요인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양육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 외상을 입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사건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외상사건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손승희 2018; Banducci, Bujarski, Bonn-Miller, Patel, & Connolly, 2016; 이지영, 정지현, 2016). 이는 Clen, Mennin과 Fresco(201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또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취약해지는 결과로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김아영, 이명희, 2008; Chen, Rubin, & Li, 1995)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셋째, 정서적 외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고통감내력을 통해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를 보였다.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는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통합한 매개된 조절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1 표준편차 조건에서 고통감내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정서적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정서적 외상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정서적 외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Schoon, Parsons와 Sacker(2004)는 아동기 때 정서적 외상경험이 있더라도 청소년기에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add와 동료들(1996)도 친구들로부터 받는 높은 수준의 지지와 도움이 학교생활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교를 비롯한 외부환경을 지지적으로 인식할 때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주위 환경에 적응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구자은, 2000; 김연희, 박경자 2001; 추이현, 2002)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

지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켜 준다. 또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지각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화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다만,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통감내력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으면 학교생활 적응을 높여주긴 하나 그 정도가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을 때만큼 크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접했을 경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Bornovalova, Gratz, Daughters, Hunt, & Lejuez, 2012; Gratz, Tull, Baruch, Bornovalova, & Lejuez, 2008)에 따라 꾸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Cohen과 Syme(1985)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므로 타인에게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지로 지각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대처나 적응적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통감내력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개입이나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아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모색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단계에 있는 일반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데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청소년

의 삶은 성인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아동기 삶의 결과이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가족, 친구, 학교, 일, 여가 등의 환경적인 맥락과 성장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적응적인 삶을 돕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모색할 수 있어 중요하다.

둘째, 일반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 경험과 고통감내력에 주시하였다는 점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를 이상화하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이 아니어도 일상의 경험을 외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외상 경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이 지속적일 경우 고통감내력과 청소년의 현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어떤 이유에 의해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심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안전, 안정, 사랑, 수용, 신뢰 등의 긍정적인 관계적 경험을 통해 그들을 돌보며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보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지역의 3개 중·고등학교의 표본만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급격한 발달로 인지, 정서적 양상이 다를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표본의 수를 많게 하여 본다면 청소년 문제를 연령별로 이해하는데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사회적 지지는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경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 증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인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통감내력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어휘 수준이 중·고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용 타당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변인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자발적으로 잘 보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적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인에 대해 이해 또한 여전히 미흡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화정, 이지연 (2016).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와 대인불안과의 관계: 자기위로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69-81.
- 고유나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1), 105-132.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이운주 (2017). 학급 단위의 중학생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7), 613-641.
- 김미경 (2015).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슬애, 하 정 (2014). 청소년의 대상관계 수준과 공감 능력간의 관계에서 자기 위로 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03-526.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한국 학술진흥 재단 선도 연구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용 상세보고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6.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연희, 박경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은정, 김진숙 (2008). 상담일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1520.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

- 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문상희, 서수균 (2015).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6), 485-504.
-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고통감내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16). 청소년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4, 65-80.
- 박현주 (2007). 사회적 지지와 자기 결정성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보건복지부 (2006). 정서적 방임 매뉴얼. <http://www.mohw.go.kr>.
- 서인균, 이연실 (2016). 청소년기 학대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4, 45-68.
-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 생각에 관한 중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 손승희 (2018).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9(1), 107-119.
-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 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곽영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 121-139.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이니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 (2018).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71-395.
- 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 청소년 자해의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청소년 상담연구*, 18(1), 1-24.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34-62.
- 이지영, 김은하 (2018). 긍정 정서강도와 부정 정서강도의 차이: 성격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7(3), 411-439.
- 이지영, 정지현 (2016). 부정 정서강도와 적응적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4), 719-740.
-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 임경란 (2019).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5), 254-276.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지현, 권석만 (2013). 고통 감내력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탈중심화와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2(3), 627-647.
- 정지현, 권석만 (2015). 고통 감내력의 두 측면: 주관적 인식과 행동적 반응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4(1), 227-248.
- 조가영, 조민아 (2018). 중학생의 정서적 외상과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597-620.
- 최미경 (2014). 사회적지지가 남녀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족과 환경연구*, 52(6), 651-668.
- 최성열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정체감간의 관계. *아동교육*, 10(1), 119-132.
- 최정미, 우희정, 이 숙 (2006).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79(3), 29-41.
- 추이현 (2002).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 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외 5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Anestis, M. D., Selby, E. A., & Joiner, T. E. (2007). The role of urgency in maladaptive behavio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2), 3018-3029.
- Anka, A. V., Ashely, S. H., Carrie, M. P., Erin, C. B., Barbara, N., & Amit, B. (2013).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in relation to PTSD symptoms among trauma-exposed adults.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2), 235-243.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nducci, A. N., Bujarski, S. J., Bonn-Miller, M. O., Patel, A., & Connolly, K. M. (2016). The impact of intolerance of emotional distress and uncertainty on veterans with co-occurring PTSD and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1, 73-81.
- Banducci, A. N., Lejuez, C. W., Dougherty, L. R.,

- & MacPherson, L. (2017).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nxiety: Moderation by distress tolerance. *Prevention science, 18*(1), 20-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 Bornovalova, M. A., Gratz, K. L., Daughters, S. B., Hunt, E. D., & Lejuez, C. W. (2012). Initial RCT of a distress tolerance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22*(1-2), 70-76.
- Bower, G. H. (1970). Imagery as a relational organizer in associative learning.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9*(5), 529-533.
- Brown,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 Buchanan, A., Ten Brinke, J., & Flouri, E. (2000). Parental background, social disadvantage, public "care,"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11), 1415-1423.
- Buchanan, R. & Bowen, G. L. (2008). In the context of adult support: The influence of peer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school student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5*(5), 397-407.
- Chen, X., Rubin, K. H., & Li, B. S. (1995).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Relations with school performance an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938-947.
- Clen, S. L., Mennin, D. S., & Fresco, D. M. (2011).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M. J. Zvolensky, A. Bernstein, & A. A. Vujanovic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49-170). The Guilford Pres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3*, 3-2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Daughter, S. B., Lejuez, C. W., Bornovalova, M. A., Kahler, C. W., Strong, D. R., & Brown, R. A. (2005). Distress tolerance as a predictor of early treatment dropout in a residential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729-734.
-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3), 277-290.
- Gaher, R. M., Hofman, N. L., Simons, J. S., & Hunsaker, R. (2013).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s mediators between trauma exposure and borderlin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 research*, 37(3), 466-475.
- Gratz, K. L., Tull, M. T., Baruch, D. E., Bornovalova, M. A., & Lejuez, C. W.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co-occurr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ner-city substance users: The roles of childhood maltreatment, negative affect intensity/reac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49(6), 603-615.
- Grossman, M., & Wood, W. (1993). Sex differences in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10-1022.
- Harris, T., & Molock, S. D.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4), 341-353.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irsch, J. K., & Barton, A. L. (2011). Positive social support, negative social exchanges, and suicid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5), 393-398.
- Howell, A. N., Leyro, T. M., Hogan, J., Buckner, J. D., & Zvolensky, M. J. (2010). Anxiety sensitivity, distress tolerance, and discomfort intolerance in relation to coping and conformity motives for alcohol use and alcohol use problems among young adult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5(12), 1144-1147.
- Kraemer, K. M., Luberto, C. M., & McLeish, A. C. (2013). The moderating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physical concerns and panic and PTSD-related re-experiencing symptoms. *Anxiety, Stress & Coping*, 26(3), 330-34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oeber, R., & Farrington, D. P. (2000). Young child who commicrime: Episoemiology, developmental origins, risk, factors, early inven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737-762.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Muller, R. T., Fitzgerald, H. E., Sullivan, L. A., & Zucker, R. A. (1994). Social support and stress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mong alcoholic famili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6(3), 438-46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choon, I., Parsons, S., & Sacker, A. (2004). Socioeconomic adversity, educational resilience, and subsequent levels of adult adaptation.

-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383-404.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ac Graw Hill.
- Shaffer, A., Yates, T. M., & Egeland, B. R. (2009). The rel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to early adolescent competence: Developmental processes i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33(1), 36-44.
- Shapiro, F. & Maxfield, L. (2003). EMDR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psychotherapy treatment. In Solomon M, F. & Siegel D, J. (Eds.). *Healing Trauma: Attachment, Mind, Body, and Brain* (pp. 196-220). NY: Norton.
- Simmons, C. A. (2007). Speculation as to Why Women “get” PTSD More Often Than Men. *Women & Therapy*, 30(1), 85-98.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 Spear, L. P. (2000). The adolescent brain and age-related behavioral manifestation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24(4), 417-463.
- Spertus IL, Yehuda R, Wong CM, Halligan S, Seremetis S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and Neglect* 27(11), 1247-1258.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0(4), 459-472.
- Thomas, A. L., & Brausch, A. M. (2020). Family and peer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suicide risk in blac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1-8.
- Vujanovic, A. A., Bonn-Miller, M. O., Potter, C. M., Marshall, E. C., & Zvolensky, M. J. (2011). An evalu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stress within a trauma-exposed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1), 129-13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Zvolensky, M. J., Bernstein, A., & Vujanovic, A. A. (Eds.). (2011).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 2020. 05.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7. 08

게재결정일 : 2020. 08. 27

**The Effects of Emotional Trauma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ye-Kyung Kim**

**Na-Hyun Yo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an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230 adolesc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Childhood Trauma, Distress Tolerance, School Adjust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Macro. The result of an integrated model with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indicated that distress tolerance partially mediated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in the effects of emotional trauma on school adjustment, distress toler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 fully mediated moderation effect. When the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was high, distress toler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rauma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necessity of active intervention to enhance social support of youth was discussed.

*Key words* : Career, Emotional Trauma, Distress Tolerance, Perceived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